

러·일관계 연구의 현단계를 살피고 한반도를 돌아보다*

[서평] 五百旗頭真/下斗米伸夫/A.V.トルクノフ/D.V.ストレリツォフ編
(2015), 『日ロ関係史: パラレル・ヒストリーの挑戦』,
東京大学出版会, 7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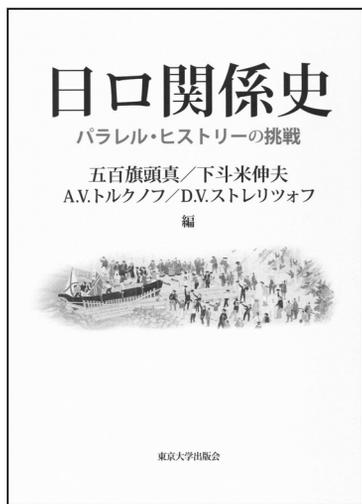
김시덕*

1. 『러일관계사』에 대하여

이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은 2015년 10월에 도쿄대학 출판회에서 간행된 『러·일관계사 - 패럴렐 히스토리의 도전』 (ISBN 978-4-13-026265-1, 이하 『러일관계사』)이다. 전체 16부 33장을 러시아 연구자 20명, 일본인 연구자 17명이 집필하였다. 러시아 국제관계대학(МГИМО-Университет) 출판회에서 러시아어판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формате параллельной истории』 (ISBN : 978-5-9228-1250-4)가 동시 출간되었으며, 『러일관계사』의 범례에 따르면 영어 및 중국어 번역본의 출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8-361-A0000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러일관계사』의 부제에 등장하는 <패럴렐 히스토리>라는 개념에 대해, 일본 측 대표 편자인 이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眞)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패럴렐 히스토리는 두 나라의 역사가가 하나의 역사인식에 동의하는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역사의 여러 국면에 대해 쌍방이 자신의 관점을 기술하고 이를 병렬시켜 출판하는 수법이다.”¹⁾ 러시아 측 대표 편자인 토르쿠노프(A. B. Торкунов)에 따르면 러시아의 학자들이 폴란드·독일·에

스토니아·라트비아 연구자들과 실시해온 공동역사가 회의(xxvi쪽)가 계기가 되어, 2011-13년에 러시아와 일본에서 네 차례 열린 러·일역사가 회의가 열렸고, 이번 서평의 대상이 되는 『러일관계사』의 출간이 실현되었다고 한다. 도쿄대학 출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형태로 타이완·중국·한국의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이 각각 『일본·타이완 관계사 1945-2008(日台關係史 1945-2008)』(2009) 전 1권, 『일본·중국 관계사 1972-2012(日中關係史 1972-2012)』(2012-2014) 전 4권, 『일본·한국 관계사 1965-2015(日韓關係史 1965-2015)』(2015) 전 3권을 출간한 바 있다. 다만, 이들 공동 연구서는 각각 1945년, 1972년, 1965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러일관계사』는 러시아와 일본이 캄차카 반도와 쿠릴열도에서 접촉을 시작한 17세기 말부터 푸틴 정권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시간적 폭이 더욱 넓다. 또한, 『러일관계사』의 또 한 명의 일본 측 대표 편자인 시모토마이 노부오(下斗米伸夫)를 비롯한 러시

1) 『日口關係史 - パラレル・ヒストリーの挑戦』(東京大学出版会, 2015) xix쪽.

아·일본·중국인 연구자 9명은 『러·일관계 - 역사와 현대(日口關係 - 歴史と現代)』(法政大学出版局, 2015년 3월)를 간행하였다. 『러·일관계 - 역사와 현대』는 『러·일관계사 - 패럴렐 히스토리의 도전』의 프로토타입과 같은 연구서로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면 중국 문제를 포함하여 러·일 양국이 유라시아 동부에서 어떠한 교섭과 갈등 관계를 맺어왔는지 더욱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동시 출간된 러시아어판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어판을 대상으로 서평을 작성하였으므로, 러시아어판과 일본어판이 엄밀하게 일대일 대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일본어판에서는, 러시아 측 연구자들의 논문을 일본어로 번역할 때 러시아 측의 용어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의 관계를 가리킬 때, 일본 측 연구자들의 논문에는 <일·러 관계(日露關係/日口關係)>라고 표현되는 반면, 러시아 측 연구자들의 논문에서는 <러·일 관계(口日關係)>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일본 측에서 영토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남쿠릴열도 섬들의 명칭도, 러시아 측 논문에서는 이투루프(Итуруп)·쿠나시르(Кунашир)·시코탄(Шикотан)·하보마이(Острова Хабомай)로, 일본 측 논문에서는 에토로후(択捉)·구나시리(国後)·시코탄(色丹)·하보마이(歯舞諸島)로 잘 구분되어 있다. 다만, 일본어로 번역된 러시아 측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쿠릴열도(クリル列島)>와 <치시마열도(千島列島)>, <사할린(サハリン)>과 <가라후토(樺太)>라는 용어가 일부 혼재되어 있으므로, 러시아어 논문을 일본어로 번역할 때 약간의 혼선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러일관계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서평자는 전근대 일본의 대외전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러시아·일본·중국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러시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정통하지 못하다. 러시아 및 러·일 관계에 대하여는 주로 일본어·영어·한국어로 집필된 문헌에 의거하여

정보를 얻고 있으며, 현재 서평자의 러시아어 수준은 초보 수준이다. 이
상과 같은 한계로 인하여, 이하 기술될 내용은 『러일관계사』의 전모와
가치를 온전히 전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러·일관계를 포함
하여 유라시아 동부에서 지난 수백 년간 발생한 사건들을 조감하는데 유
용한 서적이 일본어로 출간되었기에, 한국사회에 이를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본 서평을 집필한 것이므로, 부디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
탁드린다.

2. 『러일관계사』의 구성과 각 장의 개요

서문 : 이오키베 마코토, 토르쿠노프

제1부 「19세기 말까지의 양국 관계」(一九世紀末までの両国関係)

제1장 「18~19세기의 유산 - 일본형 화이질서에서 서양형 국제질서로」(一八~
一九世紀の遺産 - 日本型華夷秩序から西洋型国際秩序へ) : 이쿠타 미
치코(生田美智子)

제2장 「18~19세기의 러·일 관계」(一八~一九世紀の露日関係) : 그리샤초프
(С. В. Гришацев)

제2부 「세기 전환기의 상호 이미지」(世紀轉換期の相互イメージ)

제3장 「러·일 양국의 내셔널리즘과 초기 상호 이미지의 공기적(共起的) 생성
- 동시대인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와 체호프의 언설을 실마리
삼아」(日ロにおけるナショナリズムと初期相互イメージの共起的生成—
同時代人二葉亭四迷とチェーホフの言説をてがかりに) : 기무라 다카시
(木村崇)

제4장 「세기 전환기 러시아의 일본 이미지」(世紀轉換期ロシアにおける日本の
イメージ) : 미하일로바(Ю. Д. Михайлова)

제3부 「러·일전쟁」(日露戦争)

제5장 「러·일전쟁의 시대 - 충돌에서 강화까지」(日露戦争の時代 - 衝突か
ら講和まで) : 미노하라 도시히로(蓑原俊洋)

제6장 「세기 전환기의 러시아와 일본 - 전쟁과 강화로의 길」(世紀轉換期のロ
シアと日本 - 戦争と講和への道) : 루코야노프(И. В. Лукоянов)

제4부 「러·일 협상기」(日露協商期)

제7장 「포츠머스 강화조약 후의 러·일관계 - 우호와 시의(猜疑) 사이에서」
(ポーツマス講和条約後の日露関係 - 友好と猜疑のあいだで) : 구로사와 후미타카(黒沢文貴)

제8장 「<예외적으로 우호적인> 러·일관계 (1905-16년)」(「例外的に友好な」露日関係(一九〇五~一六年)) : 페스투슈코(Ю. С. Пестушко), 슬라토프(Я. А. Шулятов)

제5부 「혁명과 간섭」(革命と干渉)

제9장 「대전과 혁명과 간섭 - 러시아 체재 일본인 디아스포라의 시점에서」
(大戦と革命と干渉 - 在ロシア日本人ディアスポラの視点から) : 하라 데루유키(原暉之)

제10장 「러시아 동부예의 간섭에 대한 일본의 참가 (1917~22년)」(ロシア東部における干渉への日本の参加 (一九一七~二二年)) : 다치센(В. Г. Дачын), 그리사초프

제6부 「1920년대」(1920年代)

제11장 「정·재계의 반소련·친소련 세력」(政財界の反ソ・親ソ勢力) : 도미타 다케시(富田武)

제12장 「소련 외교와 대중국·대일본 관계」(ソ連外交と対中・日関係) : 그리뉴크(В. А. Гринюк), 로슈키나(Ложкина А. С.)

제7부 「1930년대」(1930年代)

제13장 「일본의 대소련 정책 - 소·일 불가침조약 문제를 중심으로」(日本の対ソ政策 - 日ソ不侵略条約問題を中心として) : 도베 료이치(戸部良一)

제14장 「스탈린의 일본 이미지와 대일정책」(スターリンの日本像と対日政策) : 로슈키나, 체레프코(К. Е. Черевко), 슬라토프

제8부 「제2차 세계대전」(第二次世界大戦)

제15장 A 「소·일 관계의 전개 - 대미 개전부터 소·일 전쟁까지」(日ソ関係の展開 - 対米開戦から日ソ戦争まで) : 하타노 스미오(波多野澄雄)

제15장 B 「소련의 만주 침공과 일본인 인양」(ソ連の満洲進攻と日本人引揚) : 가토 기요후미(加藤聖文)

제16장 「알타회담 전후의 소·미 관계와 일본」(ヤルタ会談前後の日米関係と日本) : 크라프체비치(А. И. Кравцевич)

제9부 「종전과 억류」(終戦と抑留)

제17장 「시베리아 억류의 실태와 귀국후의 운동」(シベリア抑留の実態と帰国後の運動) : 도미타 다케시

제18장 「1945년의 만주 전격전과 일본인 포로」(1945年の満洲電撃戦と日本人捕虜) : 키리첸코(А. А. Кириченко)

제10부 「강화에서 국교 회복으로」(講和から国交回復へ)

제19장 「영토를 둘러싼 미·일·소 관계 (1951-70년)」(領土をめぐる日米ソ関)

- 係 (一九五一~七〇年) : 고노 야스코(河野康子), 시모토마이 노부오
 제20장 「강화에서 소·일 국교회복으로」(講和からソ日国交回復へ) : 츠그로프
 (С. В. Чугров)
 제11부 「냉전과 데탕트」(冷戦とデタント)
 제21장 「소·일 관계와 <정경불가분> 원칙(1960-85년)」(日ソ関係と「政経不可分」原則(一九六〇~八五年) : 오자와 하루코(小澤治子)
 제22장 「냉전하 소·일 관계의 지그재그(1960-85년)」(冷戦下ソ日関係のジグザグ(一九六〇~八五年) : 쿠즈민코프(В. В. Кузьминков), 파블랴첸코
 (В. Н. Павлятенко)
 제12부 「페레스트로이카」(ペレストロイカ)
 제23장 「고르바초프 등장과 <확대균형>론(1985-91년)」(ゴルバチョフ登場と「拡大均衡」論(一九八五~九一年) : 시모토마이 노부오
 제24장 「<신사고> 노선과 소·일관계(1985-91년)」(「新思考」路線とソ日関係(一九八五~九一年)) : 사르키소프(К. О. Саркисов)
 제13부 「엘친 시대」(エリツイン時代)
 제25장 「도쿄선언에서 이르쿠츠크 성명으로」(東京宣言からイルクーツク声明へ) :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
 제26장 「러시아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ロシア政府の対日外交政策) : 파노프
 (А. Н. Панов)
 제14부 「21세기」(21世紀)
 제27장 「러·일관계의 과거 10여년」(日ロ関係の過去十余年) : 가와라지 히데
 타케(河原地英武)
 제28장 「러·일관계의 발전 가능성」(日ロ関係発展の可能性) : 카자코프 (O.
 И. Казаков), 키스타노프(В. О. Кистанов), 스트렐초프(Д. В. Стрельцов)
 제15부 「영토문제」(領土問題)
 제29장 「북방영토문제와 샌프란시스코 체제」(北方領土問題と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 : 하라 기미에(原貴美恵)
 제30장 「러·일간의 영토문제 - 시모다조약에서 오늘날까지」(日ロ間の領土問題 - 下田条約から今日まで) : 스트렐초프
 제16부 「상호표상」(相互表象)
 제31장 「러·일 관계사의 이미지와 표상」(日ロ関係史におけるイメージと表象) : 고스게 노부코(小菅信子)
 제32장 「현대 러·일 관계사의 상호 이미지 진화 - 2국간 관계의 독립요인으로서」(現代日ロ関係史における相互イメージの進化 - 二国間関係の独立要因として) : 츠그로프, 스트렐초프
 후기 : 스트렐초프, 시모토마이 노부오
 발문 :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나리슈킨(С. Е. Нарышкин)

『러일관계사』의 서두에는 일본과 러시아의 대표 편자인 이오키베 마코토와 토르쿠노프에 의한 두 편의 서문이 실려 있다. 저명한 현대 정치학 연구자인 이오키베는 일본정치학회 이사장과 방위대학교 교장을 거쳐 현재는 구마모토 현립대학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소련 시대의 외교관이었다가 1992년부터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토르쿠노프는 한반도 정치를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로, 한국전쟁에 대한 그의 저서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구종서 옮김, 에디터, 2003)가 번역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은 서두에서 1917-22년 사이의 간섭 전쟁과 니콜라에프스크항 사건, 일본군의 사할린 북부 점령, 1945년 8월에 소련이 불가침조약을 깨고 전격전을 전개함으로써 발생한 시베리아 억류자 문제, 남쿠릴 열도 문제 등, 두 나라 간에는 다수의 논쟁 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국 연구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우호적인 대화를 거듭한 끝에 『러·일관계사』를 출간할 수 있었다고 자평한다. 특히 이오키베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덤불속(藪の中)』(영화화된 제목은 『라쇼몬』)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의(正義)는 나라 숫자만큼 존재한다>라는 말은 극단적일지도 모르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세계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지적 기반 없이 협소한 시야의 내셔널리즘에 몸을 맡긴다면, 다시 한 번 전쟁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어져버릴 위험이 있다. <상대국은 이렇게나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가?> 하고 놀라고 또 이를 즐길 수 있다면 패럴렐 히스토리는 성립하게 될 것이다”(xx).

제1부 「19세기 말까지의 양국 관계」에는 오사카대학 명예교수 이쿠타 미치코의 「18~19세기의 유산 - 일본형 화일질서에서 서양형 국제질서로」와, 러시아 국립인문대학 현대동양학부 교수 그리샤초프의 「18~19세기의 러·일 관계」가 수록되어 있다. 전 33편의 논문이 수록된 『러일관계사』에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즉 근대 이전을 다루는 논문은 이 두 편뿐이다.

제1장 「18~19세기의 유산 - 일본형 화이질서에서 서양형 국제질서로」에서는 러시아가 최초로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인 1792년의 락스만(A. Э. Лаксман), 1804년에 파견된 레자노프(Н. П. Резанов)의 제2차 사절단, 1806-07년에 레자노프의 부하 흐보스토프(Н. А. Хвостов) 등이 사할린과 남쿠릴열도에서 아이누인과 일본인을 습격한 이른바 흐보스토프 사건과 이에 대응한 일본 측의 골로브닌(B. М. Головнин) 납치 사건에 이르는 초기 러·일 관계를 개괄한다. 그 후, 소강 상태에 있던 러·일관계가 1850년대에 재개되면서 푸차친(Е. В. Путятин) 사절단이 평화적인 교섭 자세를 보였으나, 그 후 러시아가 또 다시 강경한 대일 외교를 펼친 배경을 살피고, 이러한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가 1871년의 이와쿠라 사절단 파견 및 1875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조약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 내의 친러적인 분위기를 일소시키고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과 경멸감을 키웠음을 지적한다.

제2장 「18~19세기의 러·일 관계」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 과정에서 러시아 코사크들이 캄차카 반도와 쿠릴열도에서 일본인 표류민들과 접촉하는 한편, 나가사키의 데지마를 통해 일본과 접촉을 갖던 네덜란드 세력이 러시아 측에 일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본과의 교역에 대한 러시아 측의 관심이 생겨났음을 지적한다. 또한, 골로브닌이 풀려나고 러·일관계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뒤에도 러시아 아메리카 상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교섭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부분도 일본 학계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흥미롭다. 1850년대 이후 러시아가 일본과 교섭하는 과정이 당시의 세계사적 흐름 및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지적한 대목 역시, 이 문제를 다루는 일본 측 연구에서 소홀하게 취급되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18~19세기의 유산 - 일본형 화이질서에서 서양형 국제질서로」에 비해 「18~19세기의 러·일 관계」는 전근대 러·일 관계사를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두 개의 논문은 상호 보완

관계를 갖는다.

제2부 「세기 전환기의 상호 이미지」에는 교토대학 명예교수 기무라 다카시의 「러·일 양국의 내셔널리즘과 초기 상호 이미지의 공기적(共起的) 생성 - 동시대인 후타바테이 시메이와 체호프의 언설을 실마리삼아」와, 히로시마대학 명예교수 미하일로바의 「세기 전환기 러시아의 일본 이미지」가 수록되어 있다.

제3장 「러·일 양국의 내셔널리즘과 초기 상호 이미지의 공기적(共起的) 생성 - 동시대인 후타바테이 시메이와 체호프의 언설을 실마리삼아」는, 근대기 러시아와 일본의 접촉 및 상트 페테르부르크 조약 체결 과정에 대해, 당시 국민국가로서 탄생하고 있던 일본과 러시아 양국민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핀다. 그런 뒤, 아이누인·러시아인·일본인 등이 혼거하던 사할린이 러시아령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한편으로는 근대 일본 소설을 탄생시킨 인물이자 반 러시아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후타바테이 시메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하고, 또 한 편으로는 체호프(A. П. Чехов)의 『사할린 섬(Остров Сахалин)』의 검토를 통해 러시아 일반의 제국주의적 분위기를 비판하고 수정하려 한 체호프의 노력을 확인·평가한다.

제4장 「세기 전환기 러시아의 일본 이미지」에서는 문학·예술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국 접촉 초기에 러시아 측이 일본에 대해 품은 우호적·적대적 감정을 망라적으로 검토한다. 우호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은 19세기 프랑스의 자포니즘(Japonisme)에서 영향을 받은 러시아의 야포니즘(Японизм)이었고, 적대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은 독일의 빌헬름 2세와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공유한 황화론(黃禍論)이었다. 한편, 러·일전쟁에 대해 러시아 국민이 전쟁의 목적을 공유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 및 풍자화를 제시한 뒤, 러·일전쟁의 패배가 가져온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스키타이주의 또는 유라시아주의, 반 유대주의, 그리고 1905년의 혁명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한다.

제3부 「러·일전쟁」에는 고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미노하라 도시히로의 「러·일전쟁의 시대 - 충돌에서 강화까지」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역사학 상트 페테르부르크 연구소 주임연구원 루코야노프의 「세기 전환기의 러시아와 일본 - 전쟁과 강화로의 길」이 수록되어 있다.

제5장 「러·일전쟁의 시대 - 충돌에서 강화까지」는, 러·일전쟁 이전의 러시아 측 상황이 통설과 달리 대일정책면에서 유화적이었으며, 양국이 충돌한 것은 상호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최근 주장을 비판하면서 시작된다. 여기서 미노하라 도시히로는 이러한 최근 통설화된 주장을 하는 연구자 및 논문을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연구²⁾를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도발적으로 시작된 논문이지만, 본문에서는 러·일전쟁 발발 전의 상황에서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일본어·영어 자료에 의거하여 주로 일본 측의 상황을 개설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6장 「세기 전환기의 러시아와 일본 - 전쟁과 강화로의 길」에서 루코야노프는 와다 하루키의 연구에 동의하는 입장에 서서, 주로 러시아어 자료에 의거하여 러·일전쟁을 전후한 상황에 러시아 정부가 보여준 지리멸렬한 모습을 상세히 서술한다. 이처럼 당시 러시아 측이 보여준 난맥상을 상술한 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다소 냉소적인 결론을 내린다. “러·일전쟁은 정치가들의 근시안과 그 악영향의 결과 일어났다. 러시아에 대해 말하자면, 숙고된 단일한 행동방침의 결여, 1898년 이후 조선에 관한 두 방면의 정책 실행(황제의 공식적인 것과 황제의 비공식적인 베조브라조프(A. M. Безобразов) 파에 의한 것), 그리고 정부의 능력부족을 들 수 있다. 일본에 대해 말하자면, 러시아에 대해 과도하게 부풀어오른 불신감, 공격성, 대외 강경 노선, 여타 열강의 정세에 대한 주의 산만

2) 『러·일전쟁 - 기원과 개전(日露戦争 起源と開戦)』(岩波書店, 2009-10년) 및 이 책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강연록 『러·일전쟁과 대한제국』(이경희 옮김(2011), 제이앤씨) 등을 참조.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즉, 두 나라 모두로부터 각각 대립을 일으킨 원인이 되는 실책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1904-05년의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일본이었다”(131쪽).

제4부 「러·일 협상기」에는 도쿄여자대학 현대교양학부 교수 구로사와 후미타카의 「포츠머스 강화조약 후의 러·일관계 - 우호와 시의(猜疑) 사이에서」와, 극동국립인문대학 부학장 페스투슈코 및 히로시마시립대학 국제학부 전임강사 술라토프의 「<예외적으로 우호적인> 러·일관계(1905-16년)」가 수록되어 있다.

제7장 「포츠머스 강화조약 후의 러·일관계 - 우호와 시의(猜疑) 사이에서」의 첫머리에 구로사와 후미타카는 러·일전쟁의 발발 원인을 양국의 상호 신뢰 결여라고 주장한다. “한반도와 만주(중국 동북부)의 지배를 둘러싸고 두 나라가 대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었을까? (중략) <신뢰성의 결여>에 바탕한 상대국에 대한 <오해>, <오인> 등의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134쪽). 구로사와의 이러한 견해는, 제5장 「러·일전쟁의 시대 - 충돌에서 강화까지」의 저자 미노하라 도시히로가 비판하고자 했던 최근의 통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러일관계사』에서는 러시아 측 연구자와 일본 측 연구자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측 연구자 간에도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어서, 일본 학계의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다. 구로사와는 러·일전쟁 직후부터 일본 측에서 영국에 대한 견제와 러시아에 대한 접근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과정을 개설한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기존의 영일동맹과 새로이 구상된 러·일협상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동양 전체에 대한 일반적 영일동맹”과 “만몽 일부에 대한 지방적 러·일협상”(151쪽)이 주종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당시 대부분의 외교관들의 이해였다고 결론내린다.

제8장 「<예외적으로 우호적인> 러·일관계(1905-16년)」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정치권과 군부가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해가

는 과정을 검토하고, 특히 1909년 11월에 미국 국무장관 필랜더 녹스(Philander C. Knox)가 제기한 만주철도 중립화 제안이 러·일 양국을 접 근시켰다고 지적한다. 이후 한반도, 만주, 내외몽골, 중국 본토에 대한 권익을 두고 러·일 양국은 대체로 상호 이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상 양국의 군사동맹으로서의 성격을 띤 1916년 7월 3일의 러·일협정이었으나, 이 협정이 조인된지 몇 달만에 러시아 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협정이 품고 있던 가능성은 실현되지 못했다고 서술한다. “(러시아 제정이 무너지자) 일본의 군사 정치 엘리트의 지향은 러시아 극동부로 향했다. 1918~22년 내전 시 일본이 간섭한 뒤, 일본에 대한 (소련의) 경멸과 불신은 더욱 뿌리깊어져, 군사 엘리트 내부에서뿐 아니라 양국 관계는 전반적으로 또 다시 장기적 대립 상태로 들어갔다”(172쪽).

제5부 「혁명과 간섭」에는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 하라 데루유키의 「대전과 혁명과 간섭 - 러시아 체재 일본인 디아스포라의 시점에서」와, 시베리아 연방대학 세계사학부장 다치센 및 그리샤초프의 「러시아 동부에서의 간섭에 대한 일본의 참가(1917-22년)」가 수록되어 있다.

제9장 「대전과 혁명과 간섭 - 러시아 체재 일본인 디아스포라의 시점에서」에서 하라 데루유키는 일본을 포함한 열강의 간섭전쟁 시기에 러시아 극동부에 존재하던 일본인 집단의 정치 경제적 활동 상황에 대해 여러 수치를 인용하여 검토한다. 특히, 러시아 적군파와 조선인 독립운동 세력에 의해 아무르강 하류의 니콜라예프스크 항구에 거주하던 일본 군인과 민간인 수백 명이 살해된 1920년 3~5월의 <니콜라예프스크항 사건(Николаевский инцидент, 尼港事件)>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러·일전쟁부터 러시아혁명 사이의 12년 동안 일본과 러시아 극동부의 무역이 감소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여, 이 시기에 러·일 양국이 우호적이었다고 하는 통설을 비판한다(183-184쪽). 이러한 주장은 이 책의 제7장 및 제8장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을 수 있다. 제9장은 『러일관계사』에 수

록된 여타 논문에 비교하면 다소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라는 『시베리아 출병 - 혁명과 간섭 1917-1922 (シベリア出兵 - 革命と干渉 1917-1922)』(筑摩書房, 1989)이라는 대저(大著)를 통해 이 시기의 통사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번 『러일관계사』에서는 자신의 저서와의 반복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문 말미에서는 최근 러시아에서 간행된 이 분야의 주목할만한 연구서로서 모르군(З. Ф. Моргун)의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본 모자이크 1860-1937 (Японская мозаика Владивостока 1860~1937)』(Владивосток, 2014)을 언급하고 있는데, 서평자가 이 책을 읽어본 바로도 근대 연해주의 개척사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 생각되었다.

제10장 「러시아 동부예의 간섭에 대한 일본의 참가(1917-22년)」에서는 1917년 2월의 러시아 혁명과 함께 시작된 러시아의 내전과 연합군의 간섭 과정, 그리고 특히 시베리아 지역에서 옴스크 정부, 극동공화국 등의 단기적인 국가들이 명멸하고, 일본군이 바이칼호 인근까지 세력을 넓히고 사할린 북부를 점령했다가 퇴각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한다. 다치센·그리샤초프는 이 시기 일본의 간섭에 대해 다음 인용문과 같은 해석을 내리는데, 이 대목은 『러일관계사』의 서문에서 일본 측 편자인 이오 키베 마코토가 러시아 측 연구자들의 상호 존중과 겸허함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언급하기도 했다(xxi쪽). “일본의 구상이 반(反) 러시아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인이 러시아의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을 잘 계산하고 현실을 적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간섭을 지지한(일본) 사람들이 친 러시아적인 경향의 사회적·정치적 세력과 그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207쪽).

제6부 「1920년대」에는 세이케이대학 명예교수 도미타 다케시의 「정·재계의 반소련·친소련 세력」과, 러시아 국립인문대학 현대동양학부 조교수 그리뉴크 및 모스크바 국립대학 초빙강사 로슈키나의 「소련 외교와 대중국·대일본 관계」가 수록되어 있다.

제11장 「정·재계의 반소련·친소련 세력」에서는 192~30년 사이에 소련과의 경제적 협력을 추진한 러·일협회장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에 주목하여, 영국·미국 등의 세력에 맞서 만주·중국에서의 권익획득을 위해 러시아를 이용하고자 한 일본 정·재계의 움직임을 서술한다. 그리고 이처럼 일본 측에서 러시아에 접근한 배경으로서, 메이지 시기 후타바테이 시메이가 투르게네프(И. С. Тургенев)의 소설을 번역한 데에서 시작되는 일본 지식인의 러시아에 대한 친근감이 존재하였음을 지적한다.

제12장 「소련 외교와 대중국·대일본 관계」는 제11장과 동일한 시기와 사건들에 대해 러시아 측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제11장이 일본의 경제계 및 해군의 동향에 주목한데 대해, 제12장에서는 소·일 관계가 특히 소련의 대 영국 외교에서 협상카드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장췌린 폭사사건을 중심으로 한 소·일 양국의 만주 권익 확보 및 세력 균형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는 등, 소련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소·일 관계를 해석하는 성격이 강하다.

제7부 「1930년대」에는 테이쿄대학 문학부 교수 도베 료이치의 「일본의 대소련 정책 - 소·일 불가침조약 문제를 중심으로」와, 로슈키나, 솔라토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러시아사연구소 주임연구원 체레프코의 「스탈린의 일본 이미지와 대일정책」이 수록되어 있다.

제13장 「일본의 대소련 정책 - 소·일 불가침조약 문제를 중심으로」에서는 1941년 4월 13일의 소·일 불가침조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본 측이 소련 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약 체결을 미룬 이유 및 마침내 조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검토한다. 도베 료이치는 1933년 9월에 주소련대사가 된 오타 다메키치(太田為吉)가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하면서, “최근 소련이 극동방면의 군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소련 측에서 보자면 일본이 불가침조약 체결을 회피하고 대소련 강경론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당시의 대소련 강경론의 일례로서 “자원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견지

에서 소련은 연해주나 바이칼호 이동 지역을 포기해야 한다”(254-255쪽)라는 주장이 있었음을 거론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간섭 전쟁 당시 일본군이 자바이칼 지역까지 진입했음을 생각하면, 일본 역사상 가장 깊숙히 들어간 내륙인 이 지역에 대해 당시 일본 사회 일각이 영토적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제14장 「스탈린의 일본 이미지와 대일정책」에서는 아르히프 문서를 분석하여 스탈린이 지닌 일본 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형성되었는지 검토한다. 당시 러시아어로 번역된 반일적 서적들에 스탈린이 남긴 메모를 분석하여, 스탈린이 일본인을 야만인·악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소개한다. 그런 뒤, 리하르트 조르게(Рихард Зорге) 사건을 비롯하여 소련과 일본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기까지 소련·몽골과 만주국·일본 간에 발생한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검토한다. 다소 개설적이고 평면적인 논문이다.

제8부 「제2차 세계대전」에는 3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쓰쿠바대학 명예교수이자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장인 하타노 스미오는 「소·일 관계의 전개 - 대미 개전부터 소·일 전쟁까지」를, 국문학연구자료관 교수 가토 기요후미는 「소련의 만주 침공과 일본인 인양」을, 호세이대학 법학부교수 크라프체비치는 「알타회담 전후의 소·미 관계와 일본」을 집필하였다. 두 명의 일본인 연구자가 참가한 것은, 현재 러·일 양국이 평화회담을 맺지 못하는 근원이 되는 이 시기의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관심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제15장 A 「소·일 관계의 전개 - 대미 개전부터 소·일 전쟁까지」와 제16장 「알타회담 전후의 소·미 관계와 일본」에서는 불가침조약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이 1945년 8월에 일본을 공격하여 당시 일본령이었던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를 정복한 배경과 과정, 정당성 등을 검토한다. 제15장 A를 집필한 하타노 스미오는 “소련 외교부는 이미 1945년 초에는 중립조약을 폐기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302쪽)던 한편, 일본 측

에 있어서도 “소련 참전은 상정할 수 없는 요인은 아니었다”(308쪽)라고 지적한다. 참모본부는 5월 말에 소련에 대한 작전계획을 수립한 상태였고, 7월 초에 완성된 작전계획에서는 작전준비 완료 시점을 9월 말로 잡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하타노의 논문에 이어, 크라프체비치는 일본이 소련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았지만 소련 지도부는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누구나 불가침조약이 파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특히 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련 측의 활동은 극동재판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서술한다. “<냉전> 때부터 실제로 소련·일본, 러시아·일본 관계를 테마로 하는 서방의 출판물은 모두 중립조약의 배신적 위반이라는 비난을 늘 끼집어냈다. 이들 출판물에서는, 일본 측 전쟁범죄자에 대한 극동국제군사재판(재판의 검찰관과 판사는 미국의 점령 당국에 의해 임명되었다) 당시, 일본이 주장하는 중립조약 위반에 관한 소련 측의 해명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잊혀져 있다. 도쿄재판에서의 확인은 소련의 대일 참전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348쪽). 이후 크라프체비치는 루즈벨트에서 트루먼으로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미국의 극동 전략과 소련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음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자가 러시아 정부의 대변인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제15장 B 「소련의 만주 침공과 일본인 인양」은 저자 가토 기요후미의 저서 『<대일본제국> 붕괴 - 동아시아의 1945년 (『大日本帝国』崩壊-東アジアの1945年)』(中公新書, 2009. 한국어 번역본은 안소영 옮김, 바오출판사, 2010)의 요약과 같은 글이다. 가토는 소련과의 전쟁을 상정한 관동군이 소련·만주 국경지대의 방어를 일찌감치 포기하였으며,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인 일본 정부가 재류 일본인들에 대해 현지 정착을 지시하였음을 지적한다. 오늘날 일본 내에서 오로지 일본인이 피해자로서만 그

려지는 이 시기 상황에 대해, 이런 상황의 씨앗을 뿌린 것이 일본 측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소련군 점령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겪은 고생담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소련 영토에 편입된 사할린 남부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전쟁 종결 직후의 혼란기를 지나 일정한 안정기에 접어들자 일본인과 소련병사 개개인의 교류도 곳곳에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소련의 현실을 본 사할린 인양자들의 경험은, 미소 냉전 시대에 돌입한 전후 일본사회에서는 보수세력으로부터도 혁신세력으로부터도 전혀 이해받지 못했다”(329쪽)라고 한다. 그리하여 가토는 오늘날 일본인들이 근대 일본의 역사에 대해 막연하게 품고 있는 피해의식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대일본제국의 붕괴에 의해 아시아 각지에서 일어난 정치 변동은 전후 일본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은 국제정치의 리얼리즘을 직시하려 하지 않고, 패전후에 일어난 혼란과 비극의 이미지만으로 국제정치를 이해하려 했다”(330쪽).

제9부 「종전과 억류」에는 도미타 다케시의 「시베리아 억류의 실태와 귀국후의 운동」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상급연구원 키리첸코의 「1945년의 만주 전격전과 일본인 포로」가 수록되어 있다.

제17장 「시베리아 억류의 실태와 귀국후의 운동」에서 도미타 다케시는,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 60만 명의 일본 군인을 억류한 사건에 대해, 홋카이도 북부 점령 계획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거부당하는데 대한 “거대한 정치적 패배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과, 홋카이도 북부를 점령하여 얻을 수 있으리라 상정된 “50만 명의 일본인 노동력”을 얻지 못하는데 대한 반동이라는 해석이 있음을 소개하고,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를 확증할 공문서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380쪽). 이는 제15장 A 「소·일 관계의 전개 - 대미 개전부터 소·일 전쟁까지」에서 제시되는 논리, 즉 확보되지 못한 일본인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과는 충돌하는 것이다(311쪽). 이하 도미타는 시베리아 억

류 포로에 대한 처우가 제네바 조약에 위배된다는 사실, 1949년 12월에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전범재판, 일본 공산화를 목표 삼아 소련 당군이 억류 군인들에 대해 실시한 의식화 교육의 실상, 시베리아 억류에 대한 일본 내의 대립 등을 소개한다. 도미타 논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콤포스몰스크 나 아무레에 억류되어 있던 일본인 포로들과 러시아 주민들간의 교류에 대한 언급이다. 이러한 교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떤 소련 주민이 시 교육 위원회에 투서를 했으나, 관계당국은 “(국토를 침략한) 독일인은 밍지만, 일본인을 왜 미워해야 하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389쪽).³⁾

제18장 「1945년의 만주 전격전과 일본인 포로」에서 키리첸코는, 1945년 당시 소련군이 점령지 및 억류 포로들에 대해 보인 잔혹상을 기존의 소련·러시아 연구자들이 간과하거나 애써 정당화했다고 비판한다. “오랫동안 소련은 일본인 포로 문제를,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잊고 있었다. (중략) 소련에서는 최초의 저작이 등장하는 1980년대까지 이 테마를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405-406쪽). 또한 저자는, 시베리아 억류 일본군 가운데 중환자 3만 명 가까이를 북한으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이 21세기 들어 확인되었음을 지적한다. 2005년에 러시아 국립 군사 아카이브가 일본정부에 대해 해당자 27,755명의 명부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⁴⁾ 한편, 제17장 「시베리아 억류의 실태와 귀국후의 운동」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민주주의 액티브> <일본신문> 등의 용어가 등장

-
- 3) 참고로, 에모리 대학 박사과정의 권경택이 콤포스몰스크 나 아무레의 건설 과정에 대한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며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베리아 억류 문제를 포함하여, 그의 연구 결과가 기대된다. 그의 석사논문은 소비에트 초기의 SF소설가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에 관한 「프롤레트쿨트 리더 -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의 역사적 형상(Истор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Александра Богданова - Лидера Пролеткульт)」이다.
- 4) NHK ETV特集 「북한에 보내진 시베리아 억류자들(北朝鮮に送られたシベリア抑留者たち)」(2005. 10. 22 방영) <http://www.nhk.or.jp/etv21c/update/2005/1022.html> 등을 참조.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시베리아 유형소에서 소련 당국이 양성하고자 하는 <반(反) 파시스트 활동분자> 및 포로를 대상으로 발행된 신문이라는 내용이 제18장에 등장한다(414-415쪽). 전체적으로 보아, 제17장이 다소 감정적인 논조로 사태의 세부에 집착하는데 반해, 제18장은 솔직하게 소련·러시아 측을 비판하고 사태의 전체상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두 개의 논문은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룬다.

제10부 「강화에서 국교 회복으로」에는 호세이대학 법학부교수 고노 야스코 및 시모토마이 노부오의 「영토를 둘러싼 미·일·소 관계(1951-70년)」와,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 추그로프의 「강화에서 소·일 국교회복으로」가 수록되어 있다.

제19장 「영토를 둘러싼 미·일·소 관계(1951-70년)」에서는 일본의 패전 이후 유라시아 동부 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개괄한다. 연합국과 일본 간의 평화조약 체결교섭 당시 영국이 중국·타이완에 대한 지지 문제에서 미국과 구분되는 입장을 취하고, 소련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1951년 9월 4일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불완전한 것이 되었다. 이후 흐루쇼프(Н. С. Хрущёв)의 등장에 따라 소련 측은 일본과의 영토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이게 되었으나, 아이젠하워 정권의 미국 군부가 일본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오키나와를 장기간 보유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소련과 일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였다. 게다가 1955년 11월에 보수 세력이 연합하여 반공주의의 자유민주당이 탄생하였으므로,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수상이 추진 하던 일본과 소련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은 좌초되었다. 즉, “소·일 교섭은 보수 합동의 <희생물>이 되었다”(425쪽). 당시 흐루쇼프는 이른바 <북방영토> 가운데 일본 측이 쿠릴열도의 일부가 아니라 홋카이도의 동쪽 끝 부분에 부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시코탄과 하보마이 제도의 <2도(二島)>를 반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나, 이러한 소련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오키나와 열도를 일본 측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J. F. 덜레스(Dulles) 미국 국무장관의 압박도 가세하여 일본 측이 <4도(四島)>를 전부 받는 옵션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정함으로써 이러한 소련 측의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이 논문을 집필한 고노 야스코를 비롯하여, 『리일관계사』에서 <북방영토> 문제를 언급하는 일본과 러시아의 연구자들은 소련 측의 유연한 대응과 일본 측(특히 일본 외무성)의 고지식할 정도로 강경한 대응, 그리고 일본 측에 대해 미국이 가한 압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0장 「강화에서 소·일 국교회복으로」에서 추그로프는 소련과의 관계 회복을 꾀하는 일본에 압박을 가한 배경이 되는, 당시 미국의 세계 전략을 개괄한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불완전한 것으로 끝난 데에는 미국만큼이나 스탈린 치하의 소련 측에도 책임이 있었음을, 주로 흐루쇼프의 회고록을 인용하며 지적한다. “전후 일본의 운명을 결정할 당시 소련의 요구는, 우리들에 대한 연합국의 태도를 자극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한 스탈린은 동일한 적개심으로 이에 대응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련의 대미관계가 훼손되었다. 우리들은 때로 무시받고, 고려되지 않고, 멸시받았다”(440쪽). 그러나, 추그로프는 스탈린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냉전기의 문맥을 상기하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지배틀에서, 또한 공산주의 진영의 지도자로서 그 밖의 입장을 취하리라고 상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443쪽)라며 현실주의적인 결론을 내린다. 제3자에게는 놀라움을 줄 정도로 소련·러시아의 역사학자를 비판하면서도,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이 취한 행동들에 대해 현실주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추그로프 논문의 장점이라고 하겠다.

제11부 「냉전과 테탕트」에는 전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교수 오자와 하루코의 「소·일 관계와 <정경불가분> 원칙(1960-85년)」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현대일본연구센터 상급연구원 쿠즈민코프 및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주임연구원 파블랴첸코의 「냉전하 소·일

관계의 지그재그(1960-85년)」가 수록되어 있다.

제21장 「소·일 관계와 <정경불가분> 원칙(1960-85년)」에서는 이 시기에 소련과 일본이 남쿠릴열도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정치 경제적 교류 관계를 확립하는 과정이 개괄된다. 바꾸어 말하면, 두 나라는 상호 교류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었으나, 남쿠릴열도 문제로 인하여 이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제21장부터 제28장까지의 모든 논문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오자와 하루코는, 1978년 8월 12일에 조인된 중·일 평화우호 협력조약이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소련이 남쿠릴열도의 군사력을 증강하게 되었다는 통설을 비판한다. 즉, 소련의 움직임은 일본 측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소련의 세계전략의 일환이었으며, 당시 소련이 실제로 대일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472쪽). 아무튼 1979-80년 일본에서는 마치 오늘날의 <협한론> 서적 붐과 같이 소련군이 홋카이도를 침공한다는 식의 주장을 담은 서적이 잇따라 출간되는 등 소련 위협론이 득세했다(475쪽). 실제로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1983년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등이 악영향을 미쳐 소련·일본 간의 무역 동향은 마이너스를 그렸으나, 1984년 후반부터 양국 외무장관과 국회의원이 교섭을 갖는 등 해빙 무드를 그리다가 1985년 3월의 고르바초프(M. C. Горбачёв) 정권 탄생을 맞이하게 된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양국 관계 전체를 조망하면 냉전기에도 협력 관계에는 진전이 있었다. 소·일 양국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77쪽)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제22장 「냉전하 소·일 관계의 지그재그(1960-85년)」도 기본적으로는 제21장과 동일한 취지이지만, 여기서 쿠즈민코프·파블라첸코는 1970년대에 미·일 간에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일본의 대외정책상 이익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미국의 방식에 대해 (일본에서) 큰 불만이 표출”(487쪽)되었음에 주목하고, 1972년 여름에 탄생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

榮) 내각이 “사전에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중요한 국제문제에 대해 대외정책상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다각외교>를 시작하게 되었다”(488쪽)라고 특필한다. 일본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자주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라는 것이 오늘날 러시아 측의 공공연한 요구임을 고려하면, 쿠즈민코프·파블라첸코가 소·일 관계사 속에서 이러한 맹아를 찾아내어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 한편, 쿠즈민코프·파블라첸코는 1983년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에 대해, 이 항공기가 정찰비행을 하고 있었다는 소련 측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500쪽).

제12부 『페레스트로이카』에는 시모토마이 노부오의 『고르바초프 등장과 <확대균형>론(1985-91년)』과, 야마나시학원대학 명예박사 사르키 소프의 『<신사고> 노선과 소·일관계(1985-91년)』가 수록되어 있다.

제23장 『고르바초프 등장과 <확대균형>론(1985-91년)』에서는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Гласность)와 페레스트로이카(Перестройка) 정책을 추진하던 당시 일본 학계 일각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와다 하루키가 1986년 12월에 『세계(世界)』에서 <4도 일괄 반환> 대신 <2도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남쿠릴열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외교 당국자, 특히 <소련 스쿨>의 보수적인 태도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한다(508쪽). 시모토마이 노부오는 고르바초프가 남쿠릴열도 문제 해결에 유연한 태도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교당국자들이 <4도 일괄 반환>에 고집했고, 소련의 상황이 급변한 뒤에야 뒤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며 아쉬워한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기대와 상호 표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특히 큰 기회가 있었던 초기에 상호 관계를 전환시킬 기회를 잃었다. 소련 최후 시기가 되어서야 움직이기 시작한 일본의 정치계가 뒤쳐진 인식에서 초래된 과오를 깨달았을 무렵에는, 이미 교섭 상대가 될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519쪽). 제23장과 제24장에서는 고르바초프 당시에 양국 관계가 진전되지 않은데 대한

러·일 양측 연구자의 아쉬움이 느껴진다.

제24장 「<신사고> 노선과 소·일관계(1985-91년)」에서 사르키소프는 소련·러시아와 일본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것을 “병적 문제”(521쪽)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회고록을 인용하면서, 일본 측이 소련·러시아의 격변기에 양국관계를 오로지 영토문제에 집중시킴으로서 고르바초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한다(526쪽). 사르키소프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오늘날까지 남쿠릴열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현대 일본의 외교가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범하게 되는 오류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소련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영토문제에 관해 고르바초프가 협조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이었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페레스트로이카 당시, 해마다 심각해진 경제문제는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입장과 권위를 깎아내렸으며, 최소한의 영토적 양보조차 불가능하게 했다”(527쪽). 또한 고르바초프 시기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일본 측이 보인 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은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한 것 같다. “일본 측에는 소련의 무언가의 제스처를 과대평과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지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극히 일반적인 것이 존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았다”(529쪽). 한편 사르키소프는, 고르바초프의 측근 체르냐예프(A. C. Черняев)가 소련의 식량문제가 극에 달한 1991년 3월 31일자 일기에서, 고르바초프가 일본 대신 노태우 대통령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적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541쪽).

제13부 「열친 시대」에는 교토산업대학 법학부교수 도고 가즈히코의 「도쿄선언에서 이르쿠츠크 성명으로」와,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외교강좌장 파노프의 「러시아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이 수록되어 있다. 도고와 파노프 모두 학자이자 외교관으로, 러·일관계의 일선에서 활동한 바 있다.

제25장 「도쿄선언에서 이르쿠츠크 성명으로」를 집필한 도고 가즈히

코는 태평양전쟁 중 의무상을 지낸 도고 시게노리(東郷茂徳)의 손자이다. 아버지인 도고 후미히코(東郷文彦)를 포함하여 3대가 모두 일본국 외교관을 역임했다. 도고 가즈히코는 일본 외무성의 <러시아 스쿨>에 속하여 <아메리카 스쿨>과 반목했고, 2002년에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사건이 일어나자 외무성을 퇴직하여 연구자로 전신했다. 스즈키 무네오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정통한 거물 정치인으로, 쿠나시리 섬에 <무네오 하우스>라고도 불리는 러·일 우호 회관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죄목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때 함께 체포되어 집행유예형을 받은 외무성 직원 사토 사토루(佐藤優)는, 그 후 전업작가로 전신하여 일본 외무성을 비판하는 선봉에 서 있다. 이처럼 러·일관계에 발생한 파란의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도고 가즈히코는, 이 논문에서 스즈키 무네오 사건과 같이 자신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990년대의 러·일관계를 다소 평면적으로 개설하고 있을 뿐이다. 이 논문에서 도고는 1990년대에 주로 러시아 측이 남쿠릴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유연한 제안을 했으며 특히 1992년 러시아 측의 비밀제안은 중요했지만, 일본 측이 4도 일괄 반환론에 너무 집착하다가 “냉전 종결후 열린 가장 큰 기회의 창을 열지 못했다”라고 회고한다(550쪽). 이 시기에 도고 가즈히코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에 대하여는 제28장 「러·일관계의 발전 가능성」에서 세 명의 러시아 측 연구자에 의해 상세히 설명된다(608쪽).

제26장 「러시아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집필한 알렉산드르 파노프는 1992년에 주한 러시아 대사로서 한국에서 근무했고 1996년부터는 주일 러시아 대사로서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의 소유자이다. 지난 2015년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가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크림반도를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반대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일본 외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 이 논문에서 파노프는 고르바초프 당시 러시아의 외교정책에는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하

는 한편,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토를 상실한 러시아의 여론이 남쿠릴열도의 일부라도 일본에 넘기는데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회고한다. 러·일전쟁과 간섭 전쟁 등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일본은 “러시아 국가의 일시적인 약체화를 이용하여 영토를 손에 넣고 싶어할 뿐이며, 러·일관계를 진지하게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다”라는 견해가 팽배했다는 것이다(570-571쪽). 파노프가 지적하는 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인의 집착과 러시아 측의 대일 혐오감은 푸틴(B. B. Путин) 치하의 2016년 현재까지도 양국에 온존하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외교관 출신의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특히 남쿠릴열도를 둘러싸고 양국간의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공식적인 희망을 제시한다.

제14부 「21세기」에는 교토산업대학 외국어학부교수 가와라지 히데타케의 「러·일관계의 과거 10여년」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현대IT부장 카자코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현대일본연구센터장 키스타노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동양학강좌장이자 러시아 일본연구자협회 회장인 스트렐초프의 3인 공동 집필 논문 「러·일관계의 발전 가능성」이 수록되어 있다.

제27장 「러·일관계의 과거 10여년」에서 가와라지 히데타케는 지난 시기에 러시아의 <2단계 반환안>을 일본 측이 거부한 결과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측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다(590쪽). 러·일국교정상화를 이끌어낸 하토야마 이치로의 손자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시기에도, 러시아 측의 기대와는 달리 국토교통상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가 남쿠릴열도를 공중 시찰하는 등의 행동으로 러시아

5) 「일본, 크림-센카쿠 혼돈하며 남쿠릴 문제 해결 어렵게 하고 있다」[파노프 전 주일 러시아 대사], 『SPUTNIK 한국어방송』(2015년 3월 6일자) http://kr.sputniknews.com/korean.ruvr.ru/2015_03_06/283226150/.

측의 반발을 샀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쿠릴열도의 사회경제발전계획(2007-15년)을 위해 한국기업을 유치하는 등, “러시아는 시베리아 및 극동부 개발에 있어서 일본의 협력을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593쪽)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러시아가 일본을 경시하게 된 상징적인 사건이, 2010년 11월 1일 메드베데프(Д. А. Медведев) 대통령의 쿠나시르 방문이라는 것이다. 가와라지는 쿠릴열도가 러시아·중국·북한·한국이 형성 중인 북동아시아 경제권의 일부로서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일본이 참가하든 않든 러시아·중국·북한·한국의 경제적 밀착 정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601쪽)라고 결론짓는다. 이는 『러일관계사』가 간행된 2015년 하반기의 일반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9월 3일에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 중국 접근 전략을 수정하고 2016년 2월 10일에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유라시아 동부의 상황은 가와라지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제28장 『러·일관계의 발전 가능성』은, 러·일관계의 발전에 대한 러시아 측의 희망을 상징하듯이, 『러일관계사』의 대표 편자인 스트렐초프를 포함하여 3인의 러시아 연구자가 논문을 공동 집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저자들은 최근 들어 러시아 정부가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해석을 바꾸었음을 강조한다. 즉, “미·일동맹은 더 이상 반(反) 러시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일본도 러시아의 대립국가가 아니게 되었다”(604쪽)라는 것이다. 이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외무장관 이바노프(И. С. Иванов)가 일본에 대한 영토 할양은 없다고 언명하는 등 대일 강경 노선이 두드러지고, 2002년의 스즈키 무네오 사건 등이 영향을 미쳐 양국 관계가 냉각되었다. 2차대전 결과 정해진 영토가 변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푸틴 대통령의 기본적인 관점도 일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터이

다.6) 그러나 저자들은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건 이후 양국간에는 에너지 문제에서 새로이 협력적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한다(617쪽). 이처럼 애써 희망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저자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여러 문제가 향후 러·일관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619쪽)라는 논문 마지막 문장이 암시하듯이, 남쿠릴열도 문제에 집착하는 일본의 여론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오지 않는 한, 양국 관계의 두드러진 발전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제15부 「영토문제」에는 캐나다 워털루대학 교수 하라 기미에의 「북방 영토문제와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스트렐초프의 「러·일간의 영토문제 - 시모다조약에서 오늘날까지」가 수록되어 있다. 양국간의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제15부이지만, 제29장 「북방영토문제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
- 6) 이 문제에 대해 푸틴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인터뷰 내용은 체첸 공화국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한 것이지만, 남쿠릴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푸틴의 이러한 견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이 : 수십 년 전 레닌이 핀란드를 내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닌가요? 체첸 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가요? // 푸틴 :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분리 여부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근거로 우리 나라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확신하는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제 방침이 지나친 강경방침’이라며 부적합한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해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체첸문제는 단순히 체첸의 독립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 걸 알 겁니다. 체첸은 향후 대러시아 공격의 교두보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미 공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무력을 증강시키고 접경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왜? 체첸 독립을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추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다게스탄까지 말려들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카프카스가 연방에서 분리되면, 그 다음은 볼을 보듯 뻔합니다. 다게스탄, 인구셰티야, 볼가 강 북부지역, 바샤코르토스탄, 타타르스탄. 그들은 이런 순서로 러시아의 심장부를 향해 들이닥칠 겁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만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만일 사태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난민을 몇 명이나 받아줄 것인지 생각해봤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대국의 분열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국제적인 대참사거든요. 이 비극적인 가상 시나리오와 실재를 비교해 보면, 지금보다 더욱 강경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N. 게보르칸, N. 티마코바, A. 콜레스니코프 편저, 표윤경 옮김(2001), 『푸틴 자서전』, 문학사상사, 232-233쪽.

서 하라 기미에는 남쿠릴열도 문제의 발생 원인과 미·러·일 삼국 관계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라는 미국이 유라시아 전략 속에서 의도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내용을 애매하게 만든 것, 그리고 일본의 보수정권이 장기집권하여 <55년 체제>가 탄생한 것이, 남쿠릴열도 문제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하라가 미·러·일 삼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아닌 캐나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이처럼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태를 다룰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하라 논문에 비하면 제30장 「러·일간의 영토문제 - 시모다 조약에서 오늘날까지」의 스트렐초프 논문은 평이하게 관련 사항을 개괄하는데 그친다. 러·일양국이 남쿠릴열도를 서로 먼저 발견했다고, 따라서 <고유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남쿠릴열도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을 남긴 것은 네덜란드였다는 저자의 지적은 유머러스하다. “쌍방은 자국이 먼저 섬을 점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남쿠릴열도는 네덜란드의 항해사 브리스(Maerten Gerritsz de Vries)가 1643년에 최초로 발견하고 지도를 제작했음에 틀림없다. 당시 네덜란드는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았다”(642쪽). 또한, 일본에서 <사할린·쿠릴열도 교환조약>이라고 부르는 1875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조약에 대해, 스트렐초프는 그 시점까지 사할린이 완전히 러시아의 행정적 관할에 편입되기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 러시아에서는 <교환조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644쪽).

제16부 「상호표상」에는 야마나시학원대학 법학부교수 고스게 노부코의 「러·일 관계사의 이미지와 표상」과, 추그로프 및 스트렐초프의 「현대 러·일 관계사의 상호 이미지 진화 - 2국간 관계의 독립요인으로서」가 수록되어 있다. 제31장 「러·일 관계사의 이미지와 표상」에서는 백여 년에 걸친 근대 러·일관계 속에서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지녔는지 개괄된다. 제32장 「현대 러·일 관계사의 상호 이미지 진화 - 2국간 관계의 독립요인으로서」에서는 최근 양국의 상호 이미지가

주로 서술된다.

『러일관계사』의 후기는 양측의 대표 편자인 스트렐초프와 시모토마이 노부오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그 뒤에 양국의 거물 정치인인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와 나리슈킨(C. E. Нарышкин)이 각각 발문을 실었다. 하토야마 구니오는 하토야마 이치로 전 수상의 손자이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수상의 동생으로, 현재 러·일협회 회장이다. 나리슈킨은 러시아 하원의장이자 러시아 역사협회장이다.

3. 『러일관계사』의 장점과 비판점

우선, 『러일관계사』의 구성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먼저, 집필자들의 주요 경력 및 저술 등의 소개가 너무 간단하여, 개별 집필자들이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수행했거나 실무에 임해왔으며, 그들의 어떠한 연구성과가 『러일관계사』에 실린 그들의 논문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논문 속에서 저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직접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러일관계사』에 수록된 논문에 해당 저자의 새로운 연구 성과인지 기존 연구의 요약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일이 저자들의 이력을 추적해야 한다. 또한, 연표가 지나치게 소략해서, 수 백 년에 걸쳐 유라시아 동부에서 전개된 양국 관계를 추적하기에는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700쪽을 넘는 연구서에 색인이 없는 것은 중대한 단점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러일관계사』는 향후 상당기간 동안 러·일관계사의 교과서로서 기능하게 될 것임이 확실하다. 신진 연구자를 중심으로 필진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러일관계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자인 와다 하루키가 막상 집필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대를 대표하는 관련 연구자들이

대체로 집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도고 가즈히코와 파노프처럼 실제로 외교일선에서 움직인 인물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반영한 논문을 쓰고, 하토야마 구니오와 나리슈킨 등 양국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물 정치인들이 글을 쓰고 있는 데에서도, 러·일 양국의 관련자 및 유관기관이 『러일관계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서문에 따르면 『러일관계사』는 러시아와 일본에서 동시 출판되었을 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로도 번역 출판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므로, 『러일관계사』의 파급력은 점점 더 증명될 터이다.

한편, 과문하여 『러일관계사』의 한국어 번역본이 준비되고 있다는 정보는 입수하지 못했다. 『러일관계사』를 편집한 도쿄대학 출판회의 다케나가 히데토시(竹中英俊) 씨는, 본 서평자가 『러일관계사』의 서평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근대 러·일관계의 큰 쟁점이 한반도였다는 사실을 고려해보아도, 한국에서 이 책의 서평이 나오고 소개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⁷⁾ 다케나가 씨의 지적처럼 근대 이후 러·일관계에서는 한반도라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기능했다. 따라서 러·일관계의 연구는 단순히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로 그칠 뿐 한반도와는 무관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한반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참고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측의 자료가 이용될 뿐 아니라 한국 연구자의 견해가 러·일관계 연구에 반영되고,⁸⁾ 궁극적으로는 한국·러시아·일본·

7) “近代日ロ関係の大きな争点が朝鮮半島であったことに鑑みても、韓国で書評、紹介されることに大きな意味があると思う”(트위터 3월 12일자) <https://twitter.com/Takeridon/status/708533450844672000>.

8) 와다 하루키는 전계서(2011)에서 최근 주목할만한 한국인 연구자의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러시아어로 출판했던 박사논문을 한국어로 출판한 최덕규 씨(2008)의 『제정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1891-1907』,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연구한 김영수 씨가 쓴 몇 편의 논문과 석정남 씨의 논문은 러시아의 원 자료를 검토한 중요한 연구로, 이 연구자들의 향후 연구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27-28쪽).

중국·미국 등 유관 지역의 연구자에 의한 공동 저작 출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러일관계사』를 일독하면 새삼 느낄 수 있듯이, 지난 500년간 러·일 관계라는 구도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우랄산맥을 넘어 시베리아를 정복하고 일본과 접촉하는 최초의 단계에서는 한반도가 거의 관련을 갖지 않았다. 근대 이후 러·일 양국의 세력 다툼에서 한반도는 만주·몽골 등과 함께 객체로서 기능했다. 1945년의 <대일본제국> 붕괴 이후에는 일본 본토가 분할되는 대신 한반도가 희생양으로서 분단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국력이 신장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외교를 전개하면서, 고르바초프 집권시기부터 한국은 러시아와 일본이 외교 전략을 구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능동적인 플레이어, 또는 러시아가 남쿠릴열도 문제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로서 새로이 자리매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국가 차원에서 역사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근대 학문 체계에서, 중국·몽골·한국 등의 주변 국가를 포괄하면서 러·일 관계를 서술하는 것은 아직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러일관계사』의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는 『러·일관계 - 역사와 현대(日口關係 - 歴史と現代)』(法政大学出版局, 2015)에는 호세이대학 자오 홍웨이(趙宏偉) 교수의 「일본·소련 / 러시아 관계와 중국 - 그 역사적 법칙과 메커니즘(日ソ・口關係と中国 - その史的法則とメカニズム)」이라는 논문이 실려 있다. 그러나 『러·일관계 - 역사와 현대』와 『러일관계사』에는 한국인 연구자의 논문, 또는 러·일관계와 한반도라는 문제에 대한 논문이 실려 있지 않다(몽골 연구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예를 들어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발생한 시베리아 억류 일본군 속에 상당수의 한반도 출신 병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한반도 남부 출신 병사들이 시베리아에서 풀려나 북한을 통해 귀국하는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다는 내용 등이 언급되지 않는다.⁹⁾ 일본 병사들 가운데 중병에 걸린 수

만 명이 북한 지역으로 이송되었다는 언급뿐이다. 또한,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일본인들이 인양된 사실을 기술하면서도, 사할린에 남겨진 한반도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한편, 『러일관계사』에 논문을 수록한 저자들이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두 나라에만 집중하다보니, 극동 지역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활동한 러시아 측 인물들에 대한 전체상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1850년대에 나가사키를 방문한 푸차친이 거문도에 들르고 한반도의 동해안을 측량했다는 사실¹⁰⁾은 『러일관계사』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또는, 20세기 후반에 일본 측과 시베리아 개발계획을 논의한 주역인 미코얀(A. И. Микоян)은, 북한의 사회주의가 김일성 일당독재 체제로 이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1956년 8월 중파 사건 당시 북한을 방문해서 러시아 측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흐루쇼프 치하에서 미코얀이 보인 행동을 고려하면,¹¹⁾ 스탈린 시대를 살아남아 스탈린 시대 소련의 과오를 풀어보려

9) 김효순(2009), 『나는 일본군, 인민군, 국군이었다』, 서해문집, 참조.

10) 예를 들어, 푸차친의 세계 일주에 동참한 곤차로프가 집필한 『전함 팔라다』(문준일 옮김(2014), 동북아역사재단)와 푸차친 일행과 거문도에서 만난 김유(金瀏)가 남긴 『해상기문(海上奇聞)』(이기석 옮김(1988), 주영하 감수, 세종대학교 출판부), 그리고 한·러·일 삼국에 남겨진 각종 공문서와 서한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푸차친의 극동에서의 활동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터이다.

11) “모든 스탈린 계승자는 테러 시절 발생했던 수천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지만, 흐루쇼프와 미코얀만이 회개하는 스탈린주의자가 되었다. 나는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보로실로프, 말렌코프 등 다른 이들이 스탈린의 사망 후 생존자들을 돕기 위해 앞장섰다는 증거를(물론 몰로토프가 자신의 아내를 석방시키기 위해 애쓴 것은 빼고) 어디서도 찾지 못했다. 작은 체구에 짙은 수염을 기른 인정많은 아르메니아인이었다고 전해지는 미코얀은 대개 레닌부터 브레즈네프까지 모든 소비에트 지도자와 함께 일한 것으로 기억되지만, 그가 스탈린 사망 후에 테러 희생자들을 위해 기울인 노력 또한 놀랄 만한 것이었다. 새 지도부의 수석의원이었던 미코얀은 자신의 여러 계획에 착수하는 와중에도 흐루쇼프의 반스탈린 계획을 지원하고 심지어는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예를 들어 1956년 당대회 당시, 흐루쇼프의 연설 전 공개회의에서 미코얀은 안톤의 아버지 블라디미르 안토노프-옵세옌코를 비롯해 몇몇 유명한 희생자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이들의 무죄를 밝힌 유일한 발표자였

한 그에게, 일당독재를 추진하는 김일성은 시대착오적인 위험인물로 비쳤을 터이다. 미코얀을 러·일관계 속에서만 바라보는 『러일관계사』에서는 그의 이러한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역사적 인물들 뿐 아니라, 『러일관계사』에 글을 실은 토르쿠노프·파노프·나리슈킨 등도 한국과 여러 형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세계관과 연구 성과는 러·일관계 또는 한러관계라는 국민국가 간의 교류틀에서만 바라보면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페럴렐 히스토리라는 편집방침을 취한 『러일관계사』를 읽으면, 동일한 주제에 대해 러시아 측 연구자와 일본 측 연구자가 어떠한 부분에 동의하고 이견을 보이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이 책을 통해 극

으며, 이에 따라 복권이 일반 정책이 되기 전 결성된 첫 복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추방된 몇몇 민족의 귀환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개인적인 삶에서 미코얀은 정치적 배경에 전혀 상관 없이 많은 희생자의 일에 자진해서 끼어드는 등 훨씬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중략) 미코얀은 자신의 공모로 체포됐던 희생자들의 친족(그중 한 명이 부하린의 아들 유리 라린이었다) 또한 가끔씩 사적으로 만났는데, 이는 희생자들이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타협을 모르는 사투놉스카야와 가깝게 지낸 것만 봐도 이는 사실인 듯했다. 미코얀이 중재한 일 가운데 특히 한 사건은 귀환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나이가 지긋한 죄수 미하일 야쿠보비치는 석방 후 집도 없이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미코얀은 야쿠보비치가 1917년 반레닌주의 당에 몸담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복권시키는 것이 불가능해하자, 카자흐스탄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에서 그가 살 곳과 생활보조금을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행동은 몇몇 내부자에게 미코얀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가장 제정신이 아닌’ 전 스탈린주의자라는 확신을 주었다. 두 지도자의 뉘우침이 어느 정도였든, 흐루쇼프의 중대한 결단이 없었다면 미코얀은 거의 아무 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흐루쇼프의 반 스탈린주의가 순전히 자기 잇속을 차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단지 스탈린의 다른 계승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이었을 뿐이라고 추정한다. 그가 최고의 권력을 쥐기 위해 때로는 일관성 없고 선별적으로 스탈린 문제를 이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요소만으로는 왜 그가 반 스탈린주의를 10여 년간의 임기 동안 그렇게 중요하고 반복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갔는지 설명할 수 없다” 스티븐 F. 코언 저, 김윤경 역(2014), 『돌아온 희생자들 : 스탈린 사후, 굴라크 생존자들의 증언(The Victims Return)』, 글항아리, 126-128쪽.

동 유라시아에 대한 러시아 측의 관점이 이렇게 많은 수의 러시아 측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것은, 일본어·영어·중국어로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이 러시아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러시아 측 집필자들은 제정러시아에서 지금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자국 역사 및 러·일 관계에 대해 건강한 비판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푸틴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 내지는 방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개혁 개방 이후 러시아 학계에 뿌리내린 전통에 의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외국인이 러시아를 이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